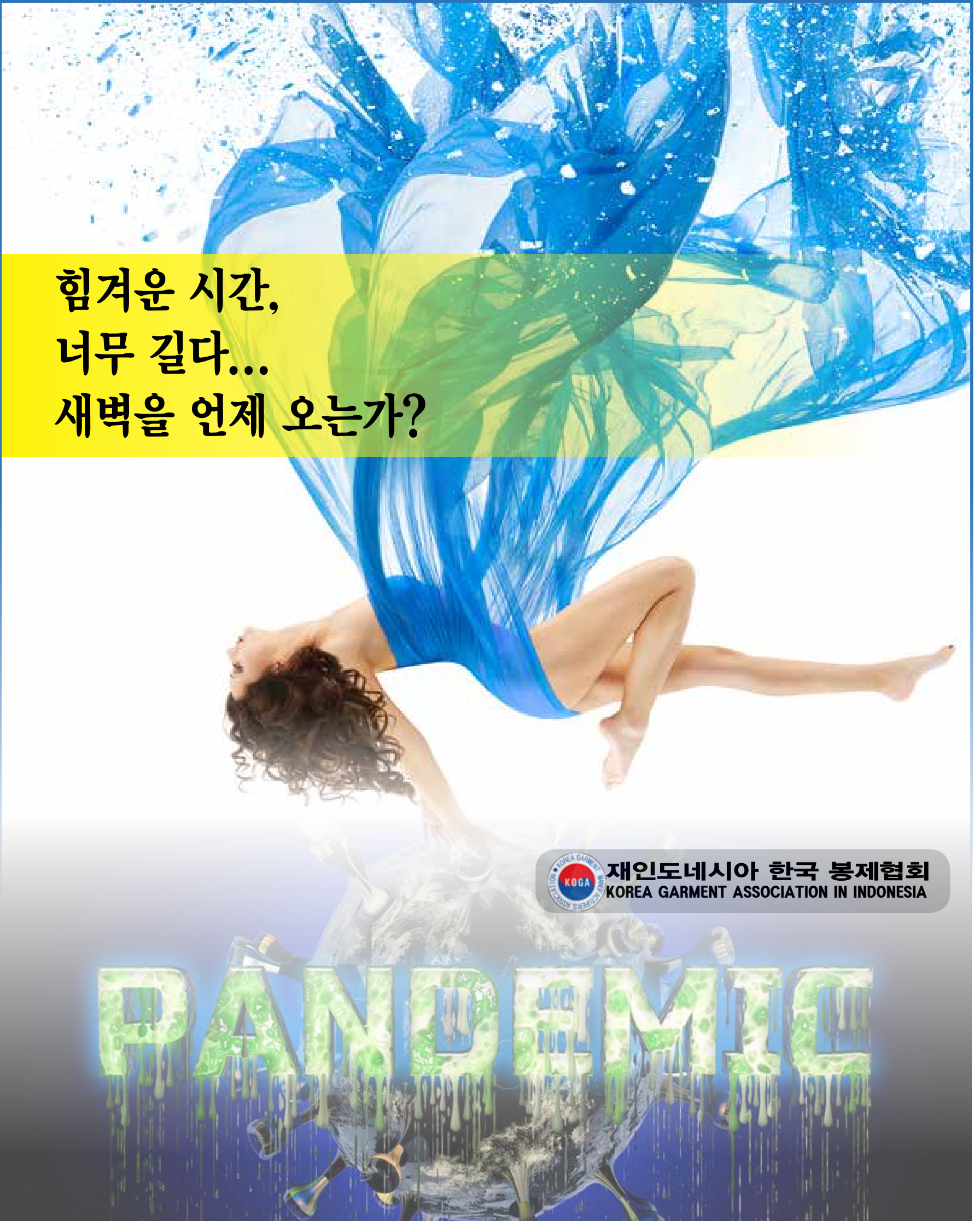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10일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Siloam) 체인과 한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봉제산업 선도하는 KOGA 등총

Vol. 33



힘겨운 시간,
너무 길다...
새벽을 언제 오는가?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 충격' 근로자 1,380만명에 보조금

“월급 500만루피아 이하 근로자에 월 60만 원루피아 현금 이체...경기 부양”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380만명에게 연말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7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에릭 포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9월부터 월급 500만 루피아(40만원) 이하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12월까지 6달 간 매달 60만 루피아(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다”고 발표했다. 에릭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에 등록된 근로자 중 1,380만명에게 적용된다”며 “보조금은 유용되지 않도록 두 달에 한 번씩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5.32%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1분기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라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 ‘현금 보조금 지급’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연평균 0%를 살짝 밑돌 것으로 최근 재무부가 전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예산 695조 루피아(57조원)를 책정하고, 부처·기관별로 빨리 집행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인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루피아(23만원)이고,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459만 루피아(37만원)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882명 추가돼 누적 11만8,753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5,521명이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활동 제한 위반 기업 감시 위한 부서 편성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 노동·이주·에너지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의 규정을 기업이 위반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특별 부서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펨뵤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감염자가 확인되었을 때 직장을 일시 폐쇄하는 것을 우려해 감염 사실을 숨기려는 기업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이주·에너지국 관계자는 2일 “기업뿐만 아니라 감염자 본인도 하고되는 것을 두려워 감염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는 감염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접수하는 창구 등을 마련하고, 감염을 보고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가 코로나19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전환 기간을 8월 13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무실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스 주지사는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의 엄격화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의회에서는 주정부의 대책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주의회 의사당은 복수의 관계자에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9일까지 예정으로 폐쇄되어 있다.

노동부, 근로자 해외 송출 재개... 88,973명 송출 준비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근로자 해외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드뭅 7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장관결정문 2020년 제294호를 공표, 우선 14개국에 한해 근로자를 송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14개국에 한국, 홍콩, 대만, 호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폴란드, 터키, 알제리, 몰디브,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가 포함됐다. 이다 파우지아 노동장관은 “인력 송출 재개는 국내 경기회복을 위함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3월 18일부터 해외 인력 송출을 중단했다.

스리 재무장관, 선불법인세(PPh25) 감액을 50%로 확대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세제

책 중 선불법인세(PPh25)의 감액 비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하반기(7~12월)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목적이다. 현지 언론 핀판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로나19 경기대책으로 발표한 ‘국가경제부흥

(PEN)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PPh25 감액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부양책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페브리오 청장은 앞서 PPh25 감액 조치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PPh25의 감액 조치는 세제개혁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0년 제23호’의 2차 개정령 ‘2020년 제86호’를 지난달 공포해 적용 사업 분야를 1,013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노동조합총연합, 옴니버스 법안 항의 시위 벌여... '14일 피크' 주장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은 3일, 수도 자카르타의 의회 건물 앞에서 수백 명이 집결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의회 심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항의 시위는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개돼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에는 수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최대 규모

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SPI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의회가 졸속 법안 심의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가 지급해야 할 일은 정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기업의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SPI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감원을 실시한 기업은 점유와 의류 업계에서만 57개사로, 총 10만 명이 해고되었다. 또한 15개 기업이 감원을 위해 협의 중이다. 자택 대기 중인 직원은 9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주, 사무실 보건수칙 감독 강화... 위반시 엄중 조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이주노동청은 주내 사무실들의 보건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콤포스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청은 보건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5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사무실 24곳을 폐쇄 조치했다. 또한 직원의 50% 출근율 등의 보건수칙을 위반한 회사 7곳이 영업중지됐다. 이주노동청은 시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계속 감독을 강화해 나가



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자체장들에게 보건수칙 위반 처벌 강화 규정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개인, 사업자, 관리자, 공공 시설 책임자 등 보건수칙의 무 강화, 코로나 예방교육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 신임대사 인사말



제19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박태성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인도네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수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 안전 분야의 영사 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명의 세계 4번째 인구 대국이자, 국민의 평균 나이가 29.9세인 젊은 나라로서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인구, 면적, GDP에 측면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판차실라(Pancasila)의 정신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함께 전진하고 있는 '적도의 진주'와 같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동남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번영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답방한 데 이어, 2019년 G20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한-인니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를 크게 다진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협상이 타결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비준되면, 양국

은 단순한 무역투자 확대를 뛰어넘어 G20 국가간의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첨단 부품소재, 방산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공유경제, 스마트 기술 등 디지털 전환 및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와 제휴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음악, 드라마, 콘텐츠, 문화, 스포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틀도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무역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분야에서의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공공외교의 동반자가 되도록 대사관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상생발전입니다.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후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거둔 양국 협력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상호 신뢰와 상생에 바탕을 둔 새로운 50년을 향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간에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고위급의 소통과 교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약 28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약 39만 명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한-인니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과 함께 하는 공간, 늘 현장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는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의 모범이고 자랑입니다. 인정되고 단결된 한인 사회는 한국-인도네시아 우호협력의 가교이자 우리 기업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대사관은 우리 동포 사회의 보호와 지위 향상, 그리고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상생발전, 공동 번영의 선린우호 국가로 나아가 수 있도록 국민, 기업인,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박태성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입지·설비 보조금

- ✓ 자가의 9~50%
- ✓ 설비금액의 6~34% (국비 100억 한도)

세제지원

- ✓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 ✓ 관세 감면: 설비도입시 최대 100%

인력 고용 지원

-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고용보조금

- ✓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 / 연 (최대 100명 한도)

스마트공장 및 R&D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 등)
-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지재권 지원

- ✓ 특허청 IP전략 지원사업 우대지원

금융 지원

-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 국내사업장 시설자금 보증·보험지원

구조조정컨설팅

- ✓ 구조조정컨설팅 알선 및 비용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중설 사업장을 운영한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중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021-574-1522(권 세영 부관장) | seyoun@kotra.or.kr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 구조조정모형 제안 ② 축소대형 ③ 청산대형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형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중견 기업(소비용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 연중상시(컨설팅 영역 완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한국 의류 벤더의 가장 큰 주 시장인 미국의 리테일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예고하고 있는 올 가을·겨울의 2차 대유행이 창궐해 리테일 매장의 섯다운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의 유통업체는 물론 국내 벤더 중 상당수가 파산 신청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원단 업체 등 2차, 3차 부도가 도미노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국면을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미국 리테일러 동향과 바이어 에이전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들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일 7만 명을 웃돌아 전체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4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의류패션 리테일러들의 매출 타격이 최악의 극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우리에게 낯익은 ‘포에버21’을 필두로 총 17개의 대형 리테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에만 21개의 대형 리테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잘 나가던 아세나 리테일 그룹(Ascena Retail Group)도 첵터11(법정관리)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회사 역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미국 내 3000개의 매장 중 1200개소를 문 닫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미국의 리테일 시장이 팬데믹 영향으로 23%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본격 섯다운 했던 미국의 리테일러들은 6월 말까지 거의 대

2차 팬데믹 오면 벤더 줄 파산

美 대형 리테일 21개사 코로나 사태 파산 신청
미전역 오프라인 매장 아직 절반 문 못 열어

극한 상황리세일 시장 올해 280억불서 2024년 640억불 예상
아마존·월마트·타겟 등 극소수만 온라인 매출 폭풍 성장



부분 문을 다시 열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루 7만 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봉쇄령이 시행되면서 남부와 북부 리테일 매장의 절반가량이 아직 오프라인 매장 문을 못 열고 있다.

반면 집에서 주부들이 옷장을 정리하는 여유가 생기면서 리세일 거래가 급증해 이 부분 시장이 올해 28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640억 달러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COVID19 이후 소비자의 약 48%가 이커머스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저 접촉(Low Contact) 활동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월마트, 타겟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쇼핑 공간이 줄면서 온라인 주문과 픽업 주문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가 종식 또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은 이상 현재의 혼미와 표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백신 개발이 지연되는 것 또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을·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와 리테일 섯다운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버티기 모드로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한국 의류 수출 벤더들도 파산 신청이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단 업체를 비롯한 2차·3차 도산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이에 따른 충분한 사전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올 들어 파산 신청한 미국의 중대형 리테일의 명단을 다음과 같다.

● RTW 리테일윈즈(RTW Retailwinds - July 13)

- 무지 USA(Muji USA - July 10)
- 수라타블(Sur La Table - July 8)
- 브룩스브라더스(Brooks Brothers - July 8)
- G-스타 로우(G-Star Raw - July 3)
- 럭키 브랜드(Lucky Brand - July 3)
- GNC - June 23
- 투스데이 모닝(Tuesday Morning - May 27)
- 센트릭 브랜드(Centric-Brands - May 18)
- J.C. 페니(J.C. Penney - May 15)
- 스테이지 스토어(Stage Stores - May 11)
- 알도(Aldo - May 7)
-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 May 7)
- 제이크루(J. Crew - May 4)
- 루츠USA(Roots USA - April 29)
- 트루 릴리전(True Religion - April 13)
- 모델스 스포팅 굿즈(Modell's Sporting Goods - March 11)
- 아트 반 퍼니처(Art Van Furniture - March 9)
- 블루스텝 브랜드(Bluestem Brands - March 9)
- 피어1(Pier 1 - Feb. 17)
- SFP프랜차이즈(SFP Franchise Corp - Jan. 23)

교통부 “자카르타 교통제증으로 연간 65조 루피아 손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은 5일, 수도 자카르타의 교통제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65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영 안파라통신이 이날 전했다.

부디 장관은 반동공과대학(ITB) 경영 학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세계은행의 지난해 데이터를 인용해 “자카르타

의 교통제증은 아시아 최악 10위 안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3,300만 명의 수도권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하루 8,800만 회 이상이 될 것이라며 그 중 320만 명은 자카르타 외곽에서 온 통근자가 자리잡고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장관은 정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면, 환승 접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이 정확한 운행 시행으로 환승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운임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10일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Siloam) 체인과 한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입원치료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실로암병원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리빙그룹 소속으로, 3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이날 실로암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 동포 여러분의 응급상황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국민·주재원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실로암병원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50만 루피아(20만원)에 받을 수 있다. 신속검사비는 24만9천 루피아(2만3천원) 안팎이다.

PCR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기다리거나, 실로암병원이 마련한 호텔 자가격리 패키지를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

재인니한인회, 코로나 검사·입원협약...확진 시 치료비는?

실로암병원 36개 체인과 MOU 체결...한국인 검사·입원 편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실로암병원과 코로나 검사·입원 협약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연합뉴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실로암병원 36개 체인과 MOU 체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연합뉴스]

다. 만약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실로암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지정병원 두 곳에 입원하게 된다.

실로암병원 36개 지점 가운데 자카르타 맘팡(Mampang) 지점과 땅그랑의 끌라빠 두아(Kelapa Dua) 지점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지정병원에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끄마요란 선수촌 응급병원 등 원치 않은 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한인회와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실로암병원과 MOU를 체결하도록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실로암 병원은 우선으로 한인 동포 병상을 확보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병원 정보제공 및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정부가 정한 방침을 모두 따른 경우 입원비가 무료다.

다만, 환자별 감염경로·확진 상황·증상여부 등에 따라 전액 무료가 아니고 일부 감면을 받거나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 2명과 술라웨시섬 마나도의 한국인 일가족 3명 등 총 5명이다.

칼리만탄 한국인 근로자 2명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3천만 루피아(250만원) 안팎을 내라고 해서 병원 측과 무료·감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다.

마나도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한국인 남성 A(44)씨의 경우 무료로 치료받았고, 하루만 입원했던 아내와 아들은 840만 루피아(70만원) 상당을 자비로 냈다.

한국인 확진자 5명 가운데 A씨와 유증상자였고, 나머지 4명은 무증상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확진자 치료비와 관련해 유증상자나 정부에서 격리를 강제한 경우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증상자나 사립병원·개인실 등을 이용한 경우 자가부담을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던 한국인 여행자가 코로나 유사증상을 보여 2주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국민은 한인회(☎021-521-2515, 카카오톡 ID Korassos)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올해 4월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전담 COVID-19 진료’ 협약을 체결했고, 5월부터는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과 ‘코로나19 원격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은행, 이달 부끄뵌 ‘에이스군단’ 파견

국내 인력만 15명 안팎 배치...해외 네트워크 중 최대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끄뵌은행(Bank Bukopin)에 대규모 핵심 인력을 투입한다.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통합(PMI)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유동성 위기를 겪은 부끄뵌은행 정상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까지 부끄뵌은행 파견 인력을 공개 모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해외 근무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공모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3년차 행원부터 팀장급까지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운집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원 조건을 임행 2년 이상 경과자로 낮추면서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덕분에 글로벌 인재를 지향



하는 우수인력을 뽑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미주·유럽 지역에 비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해외파견의 선도호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를 향한 이번 관심은 꽤 이례적이라 평가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그룹차원의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 글로벌 커리어를 쌓고 싶어하는 행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신남방국가를 향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다. 그만큼 부끄뵌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팀원과 팀장급 인력 15명 안팎을 부끄뵌은행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외 네트워크 파견 인력 규

모로는 최대다.

인력 파견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은행은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한 현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그리고 IT 시스템 전반 등을 점검할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낼 방침이다.

또 여신관리와 자본시장, 기업금융 등 현지 시장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도 이달 중으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개인여신상품 등 리테일과 투자은행(IB) 업무를 담당할 직원 파견을 계획 중이다. 현지 채널에 적합한 디지털전략을 세울 인력도 함께 파견한다.

부끄뵌은행의 PMI 작업은 최창수 글로벌사업그룹 대표를 필두로 한종환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이끈다. 그는 부끄뵌은행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CRO)도 맡고 있다.

최대 주주가 된 국민은행은 부끄뵌은행 이사회 의장 선임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는 최대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을 대표하는 만큼 향후 추천할 사외이사는 물론 파견인력도 부끄뵌 경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력 우선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KB금융의 DNA가 인도네시아와 만나 글로벌 현지화 성공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월간 KOGAZI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ZI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ZI(월간)

1) KOGAZI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1년(辛丑年)을 준비하세요!

2021

도시출판권협회 광고계로 SILK ROAD

광고태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박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된 사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21 3002 9080 / 91
pt.kwangaeto@gmail.com**

에릭 토히르, 코로나19 속 대통령 후보로 부상



▲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 [위키피디아]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에릭 토히르는 상대적으로 정당과 덜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의 결정을 좀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협상을 하지 않고도 조코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사업가로 널리 알려졌을 뿐 정치 경험이 없는 에릭의 급부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에릭의 사업가로서의 태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주요사안을 맡겼다. 사업가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령 No. 82/2020을 통해 에릭을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정치연구소의 피르만 누르 소장은 그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주최사인 PT 마하카 미디어(Mahaka Media)의 설립자인 에릭은 거의 정당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정치인

들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에릭은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INASGOC) 회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해, 2018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 그는 조코위-마름 아민 대선 캠프를 이끌었고, 조꼬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뒤에는 국영기업부 장관이 됐다. 피르만은 에릭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을 쌓음에 따라 조코위 정부의 연정에 참여한 정치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피르만 소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대통령 No.82/2020을 발표해 앞서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No.7/2020을 대체하고, 에릭을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이끄는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우선 순위를 방역에서 경제로 옮기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속 정치비평가 아리아 페르난데스는 에릭의 임명을 잠재적 후계자를 키우려는 조꼬위의 노력으로 해석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에릭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그는 에릭에게 정책입안자와 지역 지도자 및 정당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겼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릭은 조코위 정부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인기는 저조하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릭은 차기 대통령 후보

로서 지지도가 1%뿐이 안 됐다. 이 조사에서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지지를 16.2%로 1위,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15%로 2위, 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13.5%로 3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Charta Politika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 순위는 뿌라보워가 12.8%로 1위, 스리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11.5%로 2위, 에릭이 5.8%로 3위를 기록했다. Charta Politika의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는 뿌라보워 17.5%, 간자르 15.9%, 아니스 15% 등이었던 반면, 에릭은 2.1%에 그쳤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 인프라 구축 촉구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제에 대비하고자 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것을 관계장관들에게 요청했다. 현지 언론 뎬뵐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도 이미 논의한 내용으로 12,500개 마을,군 등에 인터넷 보급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 “경제회복 속도내겠다”



▲ 인도네시아 아이들랑가 하르하르도 경제조정장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경제 대응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이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다졌다. 현지 언론 폼빠스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은 기자회견을 통

해 “정부지출 늘려 경제 회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 소비력 제고와 업종별 지원을 통해 3.4분기에는 경제회복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부문에 87조 5500억 루피아와 경제회복사업에 607조 6500억 루피아, 총 예산 695조 2500억 루피아가 투입한다. 또한 가족복지금과 생필품보조 등 사회안전망자금으로 203조 9000억 루피아가, 중소기업 지원에 123조 4600억 루피아, 협동조합 지원에 53조 5700억 루피아가 투입한다. 아이들랑가는 이어 “보건대응면에서 3T(Testing, Tracing, Treat)를 확대하고 백신 개발 강화(1년 내 백신 생산 보급 준비), 전국민이 동참하는 ‘3M 캠페인(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유지하기)’을 전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2%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1분기 이후 21년만의 최저치이다.

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미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 활용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오지 않는다. 지금이 신속한 디지털화를 위한 모멘텀이다”라고 언급했다. 디지털화 위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디지털 부문 인재 9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정부부처, 기관은 아직 위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21년(辛丑年)에는

우리가족, 동호회 카렌다를 만들어 보세요!

2021

2021

도시발전/인쇄
활 계 로

SILK ROAD

가족 카렌다, 동호회 카렌다 제작은...

1. 가짜사진 및 개인정보를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2. 각 동호회 및 소그룹 카렌다를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3. 단 1권부터 제작이 가능하며 제작비의 부담이 없습니다.
4. 제작된 사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 : 0958 9080 0982,
021 3002 9080 / 91
pt.kwanggaio@gmail.com

마스크 · 방호복 수출 '난타전'

코로나 초기 째짤했던 채산성, 벌써 노마진 수준 추락



국내 업체끼리 제살깎기 과당 경쟁 과열선발 업체 수출 시장 뛰어들어 투매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수출 오더가 폭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국내 업체끼리 과당 경쟁이 벌어져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채산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와 방호복 수출 오더가 단위당 수천만에서 수억 장 규모로 대형화되고 그중에서도 각국에서 코로나 방역 선진국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선호해 마스크 전문 업체와 의류 벤더들의 방호복 수출 오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스크 수출에 제한이 없는 원단 마스크(공산품) 수출은 물론 KF80·94 수준의 MB필터 마스크의 '메이드 인 코리아' 산 수입을 위해 유럽은 물론 중동 국가 등지에서 대량 오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서나마 단 행사 기간 중 집단 종교행사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자 물량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산 MB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별 업체들이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득달같이 경쟁 업체들이 저가 공급 조건으로 거래선을 침범해 오더 쟁탈전이 벌어지는 불쌍사나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 조건으로도 '메이드 인 코리아' MB필터 마스크는 오더가 넘치는데 선별 업체가 이미 계약해 선적 중인 시장에 뛰어들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압제 상흔 때문에 선별 수출 업체들이 수요 국가로부터 가격 인하 압력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업체들의 고질병인 소나기 수출이 마스크 시장에까지 본격 번져 국내 업체끼리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선·후

발 업체 모두가 손해 보는 어리석은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KF급 MB 마스크뿐 아니라 순면 소재 면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형 의류 벤더가 역 단위 규모의 면 마스크 오더를 수주해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어 가격이 난장판이 되는 등 선발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다운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뿐 아니라 방호복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중 대형 의류 벤더들이 역 단위 물량을 수주해 해외 공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방호복 시장에도 경쟁이 치열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때보다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호복은 수입국 정부가 이미 비축용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 신규 수요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고받는 가격 경쟁이 벌어져 우리 시장을 우리 스스로 망가뜨린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업체뿐 아니라 중국 업체들까지 끼어들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어 초창기 채산이 좋았던 방호복 채산성이 원가 수준 가까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와 방호복 불문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방호복은 해외 소싱)은 제값을 유지해온 한국산 선호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격 추락에서 빚어진 손실을 막기 위해 제 살 깎기 과당 경쟁은 시급히 멈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MLCC(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삼십 초 백열등이 그네를 타는 목로주점 흥바람 벽엔 그녀와의 사랑이 켜켜이 묻어있다. 그때 지리산 계곡의 우리 집에선 물방앗간에서 돌리는 수차에 횃대를 연결해 발전기를 돌리고 대나무와 소나무로 영성하게 전주를 연결해 5층 등으로 전깃불을 밝혔다. 등잔불과 호롱불로 형설의 공(?)을 닦던 나는, 제삿날에나 켜는 촛불 5개의 밝기라는 '5초등'에 신세계로 이동했다. 그래서인지 전기에 관심이 많았다. 대못에 에나멜선을 감아 건전지로 연결하면 못은 전자석이 되어 쇠붙이를 주렁주렁 끌어당겼다. 도량물을 막아 수차를 돌리고 영성하지만 자석에 코일을 감아 발전을 하려고 엄청 시도를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헌 건전지를 뜯어 탄소막대와 구멍이 송송 난 아연판 사이에 염화암모늄을 걸쭉하게 반죽해 다시 감아 싸고는 미미하나마 전기를 뽑아보았다. 꼬마 전구가 어둠속에서 불그레하게 발열을 하는 그 희열, 그런 기분에 과학자들이 날밤을 새울 것이다.

전기 없이 산다는 것은 빅뱅이라도 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간단히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전이다. 농사짓고 거두어 들여서 상하지 않게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려면 말리거나 얼리거나 염장(鹽藏)을 해야 한다. 기술을 들이면 방부처리나 진공포장 등이 가능하겠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배터리(축전지)였다.

전기버스의 모터를 돌리는 전기는 농작만큼이나 큰 배터리 팩에서 나온다. 커야 많은 축전을 하기 때문이다. 50kwh급 2팩을 연결해 630 볼트를 낸다. 일반 자동차에는 발전기와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로 시동을 걸면 발전기로 계속 쓰는 전기를 만들고 또 저장한다. 이 배터리의 전압은 승용차용 12볼트, 트럭용 24볼트 정도다. 그

런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등에 쓰이는 커패시터(축전기; capacitor)란 것이 놀라운 물건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콘덴서(condenser)라고도 하는데 광학분야에서 집광기(빛을 모으는 기기)나 기체역학에서 응축기(기체를 액체로 변화시키는 기구)를 콘덴서라고 하니 헷갈릴 수가 있다.

이 커패시터는 시루떡을 쌓듯이, 고층 아파트를 짓듯이, 쌓아올린(적층)것을 그 소재인 세라믹(고령토)과 함께 적층(Multi Layer) 세라믹(Ceramic) 커패시터(Capacitor)라고 부른다. 하는 일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로,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압이 요동치지 못하게 막고 집적회로를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그러면 전자부품은 제 기능을 하고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자그마한 스마트폰에 이 MLCC가 1,000여개 들어 있는데 비해 전기자동차엔 열배가 넘는 13,000개, 앞으로 나올 IoT 자율주행차엔 15,000개가 들어갈 것이라 한다. 반도체 집적회로 옆에 붙어서 필요한 전력을 축전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축전해 두는 것이라 골퍼와 캐디 같은 역할이다. 뭐든지 다 지원할 테니 공부만(?) 잘 하라는 엄마 같다면 너무 골어다 불인 건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촌인 삼성전기의 사업장을 들여 MLCC를 많이 만들겠다 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분야에 앞선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村田製作所)가 세계시장을 40% 넘게 차지하고 있다. 해방전에 도쿄에서 염색공장 자리를 빌려 애자(碍子, insulator)를 만들었고 그 이후 기술의 흐름을 짚어 콘덴서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볼 따름이다. 미중갈등으로 미국이 일부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자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정보기술의 흐름을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도체와 커패시터 형제인 것 같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중후



조기조 박사

장대한 것에서 경박단소한 것으로 가야 한다던 때가 있었다.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한 때가 있었다. 공학보다는 인문학을 중시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 상대적이고 단편적인 표현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시대다.

아날로그로 된 인간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사는 시대다. 인간은 지식과 기술로 돈을 벌지만 돈을 먹을 수는 없고 그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고 꼭꼭 씹어서 소화할 시켜야 사는 것이다. 많은 돈으로 대단한 의료기술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왕성한 대사로써만 가능하다. 캐식, 캐면, 캐번이 그것인데 손발과 몸뚱이를 따나게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려면 쉼 버리고 비울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쌀 10kg 가격이 3만 원 정도인데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MLCC 10kg 가격은 얼마나 될까?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겠지만 10만 배라 해도 30억이다. 그런데 MLCC를 먹고 살 수는 없으니 때로는 한 줌의 쌀이 더 소중한지 않을까? 임추가 지났지만 맹위를 떨치는 이상기후 탓에 나도 이상해 진건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자카르타 코로나19 환자 증가 ... 의사들 위기감 느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의료 종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이 타이트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도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는 병상의 이용률은 7월 26일 시점에서 66.9%에 달했다.

전염병 지정 의료기관의 한 의사는 "7월 초부터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50개 병상 중 90%가 차 있는 상태"라며 "지역 병원 등에서 환

자 수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염 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당국에 촉구했다.

다른 병원의 간호사는 늘어나는 환자수를 우려하고 있다. 7월 30일 시점에서 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6명이 공기 감염 격리실로 이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카르타에서는 67개의 병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시아계인 선수촌 병원으로 개장한 위스마 아뜰렛(RSD Wisma Atlet) 병원이 감염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중 위스

마 아뜰렛 이외 병원의 격리 병상 수는 총 4,556개, 중환자실(ICU)은 659개다.

예를 들어 중증환자를 수용하는 술리안띠 사로스

(Sulianti Saroso) 감염증 병원에는 현재 38명이 입원해 있으며, ICU는 이미 만상이 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UAE와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협정...한국도 추진 중

한국 대사관 “기업인 패스트트랙 조율 중, 관광객은 대상 아냐”
발리·코모도섬 개장했지만, 관광객 비자·격리면제 결정 안 돼



▲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인도네시아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 비즈니스 목적 출장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UAE와 공무·외교 목적을 포함한 필수 비즈니스 출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 통로’(travel corridor) 협정에 합의했다”

며 “이 협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며 “기업인·사업가, 외교관 등 필수 목적 출장자에 한하며,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출장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즉시 건강 상태를 확인받는다.

인도네시아 주재 압둘라 UAE 대사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추후) 관광객에게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ITAS)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종사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레트노 장관은 “UAE에 이어 한국,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여행 통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UAE 정부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1월 방문하자,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26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통로 협정은 한국 정부

의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과 같은 의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관련해 자가격리 면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 자가격리 기간 면제가 약속되지 않는 한 기업인 간 교류·출장, 투자가 힘들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국가 간에 면제협정 체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만은 6월 22일부터 뉴질랜드·호주·한국·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5~7일로 줄였다.

영국은 7월 10일부터 프랑

스·한국·대만·호주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자가격리도 면제했다.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저위험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인에게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와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한국 정부에 최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섬 관광을 6월 말 간 폐쇄했다가 지난달 31일 내국인에게 허용했고, 9월 11일부터 외국인에게 허용한다.

코모도섬도 이달 15일부터 국내외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코모도섬은 지난달 6일부터 같은 군 거주민 가운데 하루 25명에 한정해 관광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목적 비자·무비자 발급 재개와 자가격리 면제 등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항공 여객에 대한 검사 의무 이행 철폐 검토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책으로서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PCR 검사 등에 대해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5일자 현지 매체 펠보에 따르면, 항공 업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부 항공운수국 관계자는 4일 시점에서 국내에서 항공 여객에 대한 PCR 검사 등의

의무 이행을 재검토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종 결정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 TF)에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 시기와 검사를 대체할 감염 방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코로나19 TF가 공포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이동에 관한 안내장 ‘2020년 제9호’에 따르면 육해공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은 출발 전 14일 이내의 PCR 검사 또는 빠른 항체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출발 시에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국, 실업자 수 1천만명 이상 달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국(바빠나스)의 수하르소 장관은 7월 기준 실업자 수가 약 1,0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의 실업자 수는 688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370만명이 추가로 증가했다.

현지 언론 리퍼블리카 7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장관은 “3월 이후 코

로나19 영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경제적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업자 수 문제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들에 각종 부양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출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구매력 향상을 도모할 의향이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페브리오 청장은 “8월 중에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

다”라며 “예산 규모는 25조 루피아이다. 코로나19 국가경제부흥(PEN)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중 사회보장 분야에 할당된 203조 9,100억 루피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로산 소장은 “향후 6개월간 실제 산업에 총 303조 7,600억 루피아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말하며 “또한 은행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키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에센스 다르마왕사 아파트 관련 채권자들 13일까지 채권 등록할 것”



▲ 올(사진=https://www.99.co/id)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프라카르사 쉐메스타 알람 (PT Prakarsa Semesta Alam, 이하 PSA)의 에센스 다르마왕사 아파트(Essence Dar-mawangsa Apartemen)에 대한 채권 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권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판단 등이 6일 보도했다.

지난 7월 28일 PSA에 지급 유예신청(PKPU,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이 제기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PKPU란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이 제

때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8일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서 열린 1차 채권자 집회에서 'PSA에 대한 PKPU 위원회(Pengurus PKPU PT Prakarsa Semesta Alam)'의 보스니 팍부난 위원은 “PKPU에 대한 채권자 등록 마감일은 13일 오후 5시까지이다”라고 말하며 “요점은 채무자가 채권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채권자를 위함이다. 은행, 공급업체, 또는 아직 PSA로부터 집합건물소유권(SHM-SRS)을 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 등 모두 해당된다”라고 언급했다.

PSA의 엘리자베스 파니아 PKPU 위원은 “동 PKPU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평화적인 채무변제 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에센스 다르마왕사 아파트) 파산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무부장관령 86호 (PMK No.86 / Tahun 2020)



김재훈 대표

인니 정부는 코로나 19관련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공표한 재무부 장관령 23호 (No.23/PMK.03/2020) 을 폐지 하였고, 재무부 장관령 44호를 지난 4월 27일 발표하였으나 최근 7월 16일부로 재무부장관령 86호를 발표하여 기존 44호를 폐지하였다.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86호는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44호와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업종 추가 및 적용기간이 12월까지 확대되었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 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12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동 재무부장관령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정부령 PP No. 23 /2018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Perdasarkan PP No.23/2018)

정부령 23호 요건을 충족한 영세사업자(연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종전 매출액의 0.5%의 최종분리과세에 대해 4월과세분부터 12월까지 면제 혜택 부여. 납세자는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H 에 해당되는 업종,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해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12월 과세분까지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구분 | 변경전 | 변경 후 |
|-------------------|------------|------------|
| | 재무부장관령 44호 | 재무부장관령 86호 |
| PPh21 면제혜택 업종 | 1,062 업종 | 1,189 업종 |
| PPh22 면제혜택 업종 | 431 업종 | 721 업종 |
| PPh25 30% 감경혜택 업종 | 846 업종 | 1,013 업종 |
| PPN 조기환급혜택 업종 | 431 업종 | 716 업종 |
| 혜택 기간 | 4월부터 9월까지 | 4월부터 12월까지 |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LU Lapmiran huruf M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 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 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 대상으로 동 재무부장관령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요건 미충족시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P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힐라, 2020 겨울 다운재킷 얼리버드 프로모션

기나긴 장마이후 다가올 폭염 예고에도 똑똑한 얼리버드 쇼핑이 한창이다.

이에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힐라는 부지런한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과 함께 신상 다운재킷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획인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힐라(FILA)는 물론 힐라 키즈(FILA KIDS)의 신상 다운재킷을 일찌감치 선보이며 구매 고객에게 푸짐한 사은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힐라는 베스트셀러인 '에이스 롱다운'을 포함, 올겨울 새롭게 선보이는 '팝콘 중다운',

'아크로 리버시블 다운', '뉴라이트2.0 롱다운'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힐라 맨투맨 또는 후드 티셔츠, 트랙탑과 트랙팬츠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구매 제품 가격대별 증정 품목 상이)

이번 겨울 힐라가 선보이는 대표 신상 다운재킷인 '아크로 리버시블 다운'은 겉면과 안쪽면 색상과 디자인을 달리해 기분 따라, 옷차림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힐라 헤리티지 DNA가 반영된 3단 컬러 블록(다크레드, 스킨핑크)의 코트 소재 걸감과 달리, 안쪽면은 단일 색상으로 구성해 심플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

다. 덕다운 충전재에 밀단 조임 끈을 부착, 외부에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아줘 한겨울 추위에도 거뜨하다.

'팝콘 중다운' 역시 독특한 소재 구성으로 선출시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품절대란을 일으킨 힐라 팝콘 보아재킷의 보글한 소재를 다운재킷 가슴부분에 적용해 보아와 다운의 만남을 이뤘다. 목둘레 안쪽에도 보아 소재를 덧입혀 따듯함을 배가했으며, 소매 역시 이너 커프스 형태로 추위를 완벽 차단했다.

이외에도 엉덩이 중간 길이로 활동성과 보온성을 모두 챙긴 뉴에이스 중합다운부터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무광 경량소재의 뉴라이트2.0 롱다운, 지난해 김유정 다운이라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무릎 아래 길이의 에이스 롱다운까지 취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힐라 키즈도 2020 신상 다운재킷 선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 제공에 나섰다. 이벤트 기간 내 힐라 키즈 다운재킷을 구매하면 힐라 리니어 로고가 돋보이는 코트 백팩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다가올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한편, 이보다 앞선 신학기 가방까지 준비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번 시즌 힐라 키즈 대표 다



운재킷인 아크로 솟다운은 힐라 헤리티지 무드가 반영된 3단 컬러 블록 디자인에 양면으로 입을 수 있다. 성인용 힐라 '아크로 리버시블 다운'과 함께 패밀리룩 연출도 가능하다. 양면 착용으로 활용도를 높인 데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에 덕다운 충전재로 우수한 보온성을 갖췄다.

힐라 키즈 '테이피 중다운'은 힐라 시그니처 로고 배색으로 스타일리시한 키즈 윈터룩을 완성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이밖에도 컬러 배색 디자인으로 유니크함을 강조한 '블록 중다운'은 안감 내부에 네임택을 부착해 분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힐라 키즈는 다운재킷 외 신상 보아재킷도 선판매 중이다. 오는 9일까지 힐라 공식 온라인몰에서 '팔레트 보아플러스', '팝콘보아재킷'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힐라 키즈 반팔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힐라와 힐라 키즈의 다운재킷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힐라 공식 온라인몰(www.fila.co.kr)과 전국 힐라, 힐라 키즈 매장에서 실시 중.

힐라 관계자는 "올겨울 다운재킷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고 발 빠른 신제품 구매와 함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번 얼리버드 프로모션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스타일과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힐라, 힐라 키즈의 신상 다운재킷을 빠르고 스마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 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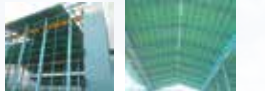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가상 자극 그대로 전달하는 VR용 옷 만들어요”

실리콘 R&D 스타트업 '웨이브컴퍼니'가 가장 뜨거운 트렌드로 각광받는 VR(가상현실) 분야는 아직 촉감을 구현하지 못했다.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는 VR 분야에서 촉감은 까다로운 기술 장벽으로 미개척지로 남아있다. 웨이브컴퍼니(공동대표 이상철 조나연)은 바로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성공하기 위한 초석을 쌓고 있는 국내 실리콘 R&D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적 특성을 띤 실리콘' 기술로 뜨겁고 차가운 느낌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의류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감각 전달 테스트를 실험하고 있다. 처음 실리콘 기술개발에 뛰어든 건 스포츠웨어 때문이었다.

업력 10년 중 7년간 스포츠웨어를 수입판매하던 중, 직접 개발에 뛰어들기로 했다. 기존 유사한 기능성 의류들은 대개 컴프레션 의류로 근육을 강하게 압박해 젖산수치를 낮췄지만 시간이 흐르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발상을 전환해 점차 실리콘으로 피부에 의류를 고정하고 근육진동을 줄여 테이프 효과를 내기로 했다. FTI시험연구원 시

험결과 25분이 지난 시점에서 젖산수치가 35%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타 컴프레션 의류나 스포츠웨어, 일반(비점착) 실리콘의류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젖산 발생률을 보여 고강도 운동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웨이브컴퍼니는 1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전 직원이 낮에는 일, 밤에는 전문 과정을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가한다. 최적의 봉제 방법을 찾기 위해 주말에 봉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퇴근 후 시석사과정을 공부하는 직원도 있다. 3명의 전문 연구원과 특허 전문 인력이 웨이브컴퍼니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개발 뿐 아니라 생산에도 관심을 갖고 실리콘 소재 제품 단가를 낮추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대형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맞췄다고 한다. 현재 해외에서 자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곧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한 전용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 근육 형태와 위치를 따라 스포츠웨어를 붙일 필요없이 입기만 하면 된다. 스포츠웨어를 붙이는 위치에 점착 실리콘을 넣어 매번 위치를 파악해 꼼꼼하게 붙이고 버릴 필요가 없다.

주인니 한국문화원, K-캘리그래피 한글 손글씨 공모전 개최



▲ (K-캘리그래피 한글 손글씨 공모전 포스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주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K-캘리그래피 한글 손글씨 공모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주재국민 또는 한인동포 아동, 청소년부(7세~17세), 성인부(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8월3일부터

16일까지다. 주최측이 제시한 한글 문구를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는 과정과 작품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제시 문구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의 한 문구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이며, 손글씨로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자료 및 작성한 작품(포맷 JPG) 2개를 온라인 (링크 주소: <https://bit.ly/K-Calligraphy2020>)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info@kccindonesia.org 또는 한국문화원 SNS 계정 (<https://band.us/band/73961743/post/4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위한 '슬기로운 부산 유학 생활' 코너 운영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재단 공식 유튜브 계정에 부산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유학 생활' 코너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유익하고 힐링이 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부산시 유학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7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유학생 근로학생 10명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유학생 SNS 기자단 10명 등 20명으로 지난달부터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슬기로운 유학 생활 콘텐츠



▲ 코로나19 (CG)[연합뉴스TV 제공]

는 부산 사투리, 부산에서 여름나기, 부산에서 맛있는 자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소개, 쓰레기 분리수거 팁, 휴대폰과 통장 개설하기 등을 담았다.

유학생을 주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도 유학생 통신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ife in Busan'에 글과 사진, 영상 형태의 유익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연합뉴스]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 작품명 : Ophelie 박지영 작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품명 : 우주 속에 피어나는 고래의 몸짓 류다연 작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ANY YOGA & COMPANY

Giant EXPRESS
KAWLAWAN EXPRESS
KAWLAWAN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세아상역, 코로나 불황 모른다

美 정부에 마스크 2억 장 수출, 방호복 포함, 2억불 상회
올 수출 2조원 거둔, 계열 태림포장, 인디에프 포함 3조 5천억
의류 벤더 대다수 코로나 공황 불구세아는 작년 수준 상회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수출 벤더인 세아상역(회장 김웅기)이 코로나19 대공황에도 끄떡없이 펄펄 날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섬유패션 수요와 공급망이 붕괴된 가운데 국내외 의류 벤더들이 하나같이 매출 감소와 정비례한 이익 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해 세아상역은 코로나19 특수인 마스크와 방호복을 통해 의류 매출 감소를 100% 이상 커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정부와 특별 계약을 통해 7월까지 약 2억 장 규모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남미 공장을 통해 본격 양산 공급하고 있다.

세아가 미국에 공급한 마스크는 대부분 면 100% 소재이며 이와는 별도로 CVC 소재의 방호복 수천만 장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아가 미국 정부 기관에 생산·공급한 마스크 원단은 국내 최대 순면 니트 원단밀인 J사가 약 300만kg 규모를 공급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세아는 올 들어 7월까지 마스크와 방호복을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져 코로나19 사태로 감소된 의류 오더의 브레이크를 완전 커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아상역은 올 수출이 작년의 18억 달러(2조 원) 수준과 같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국내 의류



수출 벤더 중 규모와 내용에
서 가장 우등생 경영을 할 것
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아상역 그룹은 모기업과
별도로 새로 인수한 국내 최
대 골판지 전문의 태림포장과

내수 패션 기업인 인디에프를
포함, 계열사를 포함해 연간
그룹 매출이 3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재계 중견기업
으로 우뚝 서고 있다.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4. 20 BAR 중고압 콤프레셔 취급

대표 / 유성 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